





# 우리꽃 신제품 시리즈

## 음지의 화려한 물결- 옥잠화 시리즈

무늬와 잎의 질감이 매우 뛰어나 음지 최고의 소재

- 1. 무늬 만으로 음지, 양지 의 화려한 연출가능
- 2. 꽃이 없어도 화려한 질감이 좋다.
- 3. 품종간 재질이 다른 특성으로 고급 조경에 만림
- 4. 지피력이 대단히 우수하다.



사계옥잠



리치랜드글드옥잠



클라우드아라옥잠



오그스트문옥잠



캐니발옥잠



행복루옥잠



세이드옥잠



눈붉은필레

- 1년에 15m, 위에서 아래로 활강의 식물복조
- 국내 활강을 개량한 최상의 원두 수종
- 지피력이 대단히 우수하다.
- 잎과 꽃이 모두 아름다워 화상의조경소재
- 겨울 1년동안 OK
- 절간이 넓고 어디다 꽃대형성은 좋은 바다
- 중앙부대 등에도 좋다.



금강애기기린초

- 땅아래에 흙이 조밀하고 재배가 쉬우며 생육 강
- 지피력이 대단히 우수하다.
- 잎과 꽃이 모두 아름다워 화상의조경소재
- 기존의 기린초와 전혀 새로운 느낌
- 추위에 매우 강하다.



개랑꽃잔디

- 크형 초, 그형 우는 기존 꽃잔디
- 여름철 하고 현상 후, 마디가 떨어지면서 지피력 강
- 화이이 신형하고 꽃이 크다.
- 여름철에도 친환경적으로 줄기 아름다운이 있다.
- 절간이 넓고 길건너에 재배가 좋다.
- 지피력이 대단히 우수하다.



개랑목단

- 꽃이 매우 다양하고 아름다운 꽃
- 꽃이 크고 화려하다.
- 잎이 매우 뛰어나 화상이 다양하다.
- 겨울에 빛겨 두는 단풍색은 겨울 개랑 최고의 선물
- 목단은 부귀, 영화를 의미하는 최고의 선물.



단풍새덤

- 꽃이 아름답고 건조에 극히 강
- 건조기 피복용으로 만능활용
- 육상녹화의 새로운 모델선도
- 가을에 빛겨 두는 단풍색은 겨울 개랑 최고의 선물
- 왕성한 지피력



속근애성천인국

- 꽃이 아름답고 키가 작은 여름대표식물



붉은영경귀

- 여름철 최상의 조경식물, 절화에도 으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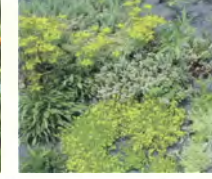
솔홍

- 생육이 강하고 꽃이 아름다운 야생에 인기초



붉은꽃범무

- 한 겹꽃으로 재배하고, 향함



새덤 혼합

- 옥성조경 우리꽃의 상목성 새덤만으로 완벽



스텔라원추리

- 봄부터 가을 까지 - 키가 작은 최상의 연꽃 개화종



별애초

- 생육이 강하고 아름다운 대명



발레리안

- 전여 새로운 개성의 진품색 신소재



애들원추리

- 우리꽃, 우렁의 유색원추리 품종 다수 확보



화롱물시초

- 내한성이 강한 반상목 수종시초

# 우리꽃 중국 현지 농장을 가다.

## 최고의 야생화 및 초화 종자 생산기지

### 15만평의 광활한 대지에 300여종이 만발



영향색 꽃들의 향연, 광활한 대지에 펼쳐진 꽃밭이 그야말로 장관이다. 대륙의 아득한 지방에서 익숙한 중국인들마저 발만 잡힐 지경이다. 이곳 호베이성 쑤저우시의 생산기지는 6만여평 단양채종장, 이곳은 중국내 생산기지는 3곳으로 약 15만평에 달한다. 이들 생산기지는 우리꽃의 중국현지 법인인 公映花卉種子有限公司(董事長:朴正公)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곳의 모든 직원은 100% 중국인. 과감한 투자와 함께 교육의 강화였으며, 아울러 과감한 인센티브제를 도입, 직원들이 자신의 앞치마 노력하는 사상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투자와 교육, 그리고 상 호선리가 오늘날을 앞당긴 원동력이 된 셈인 것이다. 김효철 총 경리를 비롯한 대부분의 직원들은 처음 시작 할 때는 식물에 대해 전혀 모르는 초보자였으나 신의를 지킬 줄 아는 인재라는 것 하나만으로 심패를 각오하고 모든 일들을 스스로 하게 되었다.

이곳 중국현지 농장의 생산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의 야생화 종자생산은 약 200톤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국내 야생화 종자시장의 50%에 달하는 분량이다. 현지의 公映花卉種子有限公司에는 현재도 中國의 많은 省市의 농부 및 화훼 종자 관련 분야인 내방객들이 찾아 오고 있으며, 합작제도가 들어올 정도로 현지에서도 주목 받고 있다. 오는 2008년부터는 중국시장에 본격적으로 제품을 보급할 계획이다. 더욱 전문화되고 다양한 종자생 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통해 일본 유럽과 미국시 장으로의 수출도 점차 늘릴 계획이다.

우리가 일찍부터 중국내 생산기지를 강화기로 한 것은 박 공영사장의 독특한 판단에서 비롯된 것. 독자적으로 종자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국내는 물론 향후 세계시장으로의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우리가 일찍부터 중국내 생산기지를 강화기로 한 것은 박 공영사장의 독특한 판단에서 비롯된 것. 독자적으로 종자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국내는 물론 향후 세계시장으로의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우리가 일찍부터 중국내 생산기지를 강화기로 한 것은 박 공영사장의 독특한 판단에서 비롯된 것. 독자적으로 종자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국내는 물론 향후 세계시장으로의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전체 관리직원은 金浩折(36歲)를 중심으로 6명. 생산 직 일용직은 농민에게 일평급 150여명, 이들은 제1농장(지민성 안투), 제2농장(호베이성 쑤저우), 제3농장(지민성 훈춘)으로 투입돼 약 300여종의 야생화 및 초화가 재배, 채종하고 있다. 이들은 거의 100%를 자체 생산 해내고 있으며, 더욱더 다양한 품종과 상품화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와 쪽우 그리고 수정반 부족 등 외의의 변수까지 견뎌 수없는 시행착오를 겪었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이겨낸 값진 성과였다. 이제는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종자 이외에도 많은 종류들이 실험 채종되거나 혼합종 시리즈의 생산과 적응시험, 그리고 일년생 고추초화의 종자 생산도 실험 중에 있다.

우리와 쪽우 그리고 수정반 부족 등 외의의 변수까지 견뎌 수없는 시행착오를 겪었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이겨낸 값진 성과였다. 이제는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종자 이외에도 많은 종류들이 실험 채종되거나 혼합종 시리즈의 생산과 적응시험, 그리고 일년생 고추초화의 종자 생산도 실험 중에 있다.





우리법면 혼합종 시리즈(3호, 4호)

# 한국의 법면, 넓은 면적의 조경이 바뀌고 있다.

## 1회 시공으로 가장 안정된 생태적 법면, 공원녹화의 첨단 현장 우리법면 시리즈는 우리꽃이 야심차게 내놓은 Seed Spray용 혼합종 시리즈다.

국내 야생화 종자시장의 붐을 이끈 우리꽃이 많은 실험과 노력으로 탄생시킨 우리법면 혼합종 시리즈가 국내 Seed Spray시장에 또 하나의 선구자를 이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악지형이 많아 법면이 기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많고 따라서 완벽한 녹화의 어려움 때문에 그간 비정상적인 녹화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온 게 사실이며, 이들 식물자재의 대부분은 씨리, 비수리, 남양초, 그리고 양잔디로 대표되는 종류가 이용되어 왔다.

최근 몇 년 사이 경관연출의 다양화와 야생화를 중심으로 화려함과 안정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한 노력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자연환경과 식물자재의 한계를 극복하는 일이 매우 어려웠다. 외국의 정원, 혹은 공원을 혼합종이 도입되어 시공되는 가 하면 일부 종자회사들의 경우 인위적이고 무분별한 종자혼합으로 남쪽, 법면에 처리되기도 했다. 그러나 시공 첫해에는 어느 정도 화려한 경관이 연출되는 듯 하다가 우리나라의 자연기후에 맞지 않는 식물의 조성과 잘못된 혼합비율로 인해 2-3년이 지나면 오히려 더욱 나쁜 경관이 되는 실패를 초래하기도 했다.

국내 야생화 종자의 최대품목, 최고양을 생산하는 우리꽃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노하우를 투입, 식물의 특성과 알맞은 혼합비를 규명하고 국내 최초의 토종야생화 제품을 시켜서 우리법면 시리즈 1, 2, 3호를 개발하여 2000년 처음 출시 하였다. 그러나 출시 첫해는 일부 현장에 적용되어 폭발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이도 기타 혼합종과 같이 2년이 지나면서 양잔디나 씨리에 우점을 당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일인이 법가를 삼피면 개발팀은 국내 Seed Spray의 관행화된 양잔디와의 혼합이 문제라는 것을 알고 대체 소재를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법면 식물자재에 야생화를 도입하기는 했으나 현장에서 씨리, 혹은 비수리와 양잔디에 굳어져 있는 소비자를 설득시키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

양잔디를 사용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식물로 빠른 피복과 토양안정화를 이루면서도 2년 후부터는 점차 없어질 수 있는 소재, 바로 질경이를 찾아내면서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다. 절경에는 뿌리가 많고 절기며



▶ 양잔디 1호는 국내 Seed Spray용 법면의 가장 좋은 씨리인 양잔디(양초)이다.



경에 120,000㎡의 광활한 면적에 Seed Spray공법으로 진행된 현장에서도 우리법면 3호와 4호의 진가는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올해 4월 15일부터 시공되어 최초 개화는 약 2개월 뒤인 6월 초순부터 1차 개화가 시작되었고, 약 2-3주 간의 기간을 주기로 화색이 변하며 연속개화가 진행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물론 국내연문사 및 일본의 관련 업계에서도 찾아와 오프도 되지않은 신설공법상의 아름다움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

이제는 완벽하리 만큼 안정되어진 우리법면 시리즈의 가장 큰 장점을 아는 설계회사, 시공회사의 관계자들은 반드시 씨리나 양잔디를 섞지않고도 안정된 피복과 생태적인 복원 그리고 화려함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 방식과 비교할 때 획기적인 성과가 아닐 수 없다.

다만 우리법면 시리즈는 기타 종자와 혼합하여 파종하면 절대 금물이다. 일반 기타 회사들의 혼합종이나 외국에서 도입한 혼합종과는 안정성이나 성능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매우 안정된 비율로 조성되었으므로 양잔디 혹은 씨리 등 기타식물과 혼합할 경우 오히려 식물상호간의 작용이 깨어져 예측 불가능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

를 요한다. 양잔디나 씨리, 남양초, 비수리 등의 식물들이 이용되는 것 중 가장 큰 이유는 토양유실을 방지하고 빠른 피복을 유도하는 것이다. 우리법면 3, 4호는 자체적으로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절대 기타제품과 혼합하거나 추가 혹은 규정량 이외의 적용은 삼가 해야 한다.

우리법면 3호, 4호의 경우 건조지, 혹은 일반지, 처리하는 계절에 따라 식물조성의 약간의 변화가 있으므로 미리 현상 상태를 확인하고 주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장량은 극 건조지의 경우 12g/㎡정도로 일반지의 경우 7-10g/㎡이며 관수가 가능하거나 수분이 충분한 경우 5g/㎡ 이면 충분하다. 가격은 약간 비싼 편으로 kg당 140,000원(신 거대가)이며 보통 100㎡를 조성할 수 있다.

파종 후 약 2개월 후부터 개화하는 우리법면 혼합종시리즈. 가장 전 환경적이며 아름다운 법면 정원 조성에 있어 일일이 묘종을 식재하지 않아도 가장 저렴하고 빠르게 연출 연속적으로 개화가 진행되는 만큼 이제 많은 조경현장에서 이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 현장인터뷰

#### ▶ 전인배 부장 (45, 동양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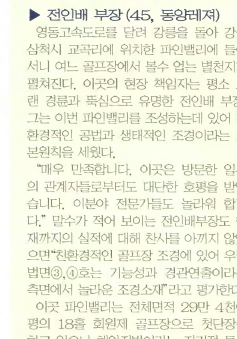
영고고속도로를 달리 강릉을 돌아 강원 삼척시 고곡리에 위치한 파인벨리에 들어서니 어느 골짜기에서 볼수 없는 별천지가 펼쳐진다. 이곳의 현장 책임자는 평소 소근 경음과 특식으로 유명한 전인배 부장. 그는 이번 파인벨리를 조성하는데 있어 친근경적인 공법과 생태적인 조성이라는 기본원칙을 세웠다.

"매우 만족합니다. 이곳은 방문한 일본의 관계자들로부터도 대단한 호평을 받았 습니다. 이번이 전문가들도 놀라워 합니다." 만수가 적어 보이는 전인배부장은 현재까지의 실적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 으며 "친환경적인 캠프장 조성에 있어 우리 법면③,④호는 기능성과 경관연출이라는 측면에서 늘어난 조성소재"라고 평가한다. "이곳 파인벨리는 전체면적 239만 4천여 평의 18층 호텔인 캠프장으로 3년간 조성 하고 있으나 해안지방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최대한 살려 향후 가족단위의 이용객들이 즐길 수 있는 종합리조트 형식으로 확대, 운용하는 것으로 설계해 왔다는 것. 따라서 이곳의 조성기준은 "원시림에 가까운 수림대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토착종을 최 소화 함으로써 자연 그대로의 모습의 최대한 살리는데 원칙이 초점이 모아졌다"는 것. 전인배부장의 설명이다.

전인배부장은 또 "이번 파인벨리의 조성 실패는 시도에는 오히려 반대도 있었지

요, 파인벨리 캠프장에서 처음 우리법면 ③호를 뿌렸는데 먼저 피복됐던 법면 때문에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이로인해 이곳에서도 파종직후 걱정한 목초리가 퍼졌었다. "이곳은 앞으로 고개들로부터 최고의 풍경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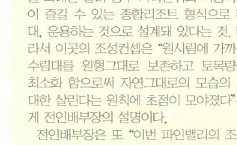
파인벨리 캠프장에서 처음 우리법면 ③호를 뿌렸는데 먼저 피복됐던 법면 때문에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이로인해 이곳에서도 파종직후 걱정한 목초리가 퍼졌었다. "이곳은 앞으로 최고의 풍경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



▶ 전인배 부장(45, 동양대계)은 이번 파인벨리 조성, 신설공법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

#### ▶ 지찬일 부장 (42, 삼척조경)

파인벨리의 현장에서 만난 지찬일 조장은 자신만만해 보였다. "성공적입니다. 우리법면③,④호에 대한 판단이 옳았으며, 행정색채 펼쳐진 장관을 보고 모두들 놀라워 합니다" 미래지향적인 조경에 대한 지찬일조장의 고집스러움과 식이치 또한한 장가법 발현해 있다. "이같은 시도에는 오히려 반대도 있었지



▶ 지찬일 부장(42, 삼척조경)은 이번 파인벨리 조성, 신설공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생육이 빠른 1-2년초로 발아가 빠르고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이다. 다른 풀이 자라던 자연 토베되는 획기적이고 유순한 소재임을 실험과 현장 적용성 시험결과로 완벽하게 나타났다. 원종을 수집하고 중국국가 농장에서 대량생산에 투입하여 2002년 출시 분부터 적용하였다.

우리법면 1, 2호의 경우 관목과 우리의 전통야생화를 혼합한 제품으로 화려함과 토양안정화가 급한 지역을 녹화 하기 위한 제품으로 개발동기는 고속도로 법면 혹은 탄정지역의 복구 사업용에 초점이 맞추어 졌다.

우리법면 3호는 26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민지용, 건조

용인시의 부자연스러운 잘 알려진 현된 동산의 많은 주민들은 우리법면 3호가 채리된 동네 친 입로와 마을 안 동산의 수림대가 개화가 시작되자 이렇게 화려한 정원은 보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시공 현장인 금호베스트 5차 아파트 주민들의 휴식 공간인 약 1000평의 동산에 4월부터 개화가 시작되면서 기타 다른 계획적으로 식재한 조경경관보다 더욱 화려하면서 자연스럽다며 탄성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것은 호평에 힘입어 우리법면 3호와 4호는 제주도에서 파주, 포천지역에 이르기 까지 전국 많은 현장에서 적용되어 시공되었다. 삼척의 파인벨리캠프장(발주:동양대계, 시공:삼척조경현

지용, 습지용으로 구분되고 또한 풀음, 가을용으로 다시 구분되진다. 가장 큰 특징은 화려하면서도 빠른 생태적안정 과 종 다양성에 의한 자연 친화형의 상품으로 우리법면 시리즈의 최대 히트 상품이다. 우리법면 4호는 3호가 갖는 기능성과 화려함을 조금 더 강조한 제품으로 우리토종의 야생화와 도입식물이 혼합되어 화려함에 더욱 맞추어져 있다. 우리법면 4호의 경우 21종이 혼합된 것으로 3호에 이어 안정되고 빠른 피복은 물론 매우 화려한 정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법면 3호와 4호를 시공한 현장의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실제 공사과 진행되어 일반인에게 공개, 관람한 고객들은 그 화려함과 안정됨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 "용인시의 부자연스러운 잘 알려진 현된 동산의 많은 주민들은 우리법면 3호가 채리된 동네 친 입로와 마을 안 동산의 수림대가 개화가 시작되자 이렇게 화려한 정원은 보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시공 현장인 금호베스트 5차 아파트 주민들의 휴식 공간인 약 1000평의 동산에 4월부터 개화가 시작되면서 기타 다른 계획적으로 식재한 조경경관보다 더욱 화려하면서 자연스럽다며 탄성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것은 호평에 힘입어 우리법면 3호와 4호는 제주도에서 파주, 포천지역에 이르기 까지 전국 많은 현장에서 적용되어 시공되었다. 삼척의 파인벨리캠프장(발주:동양대계, 시공:삼척조경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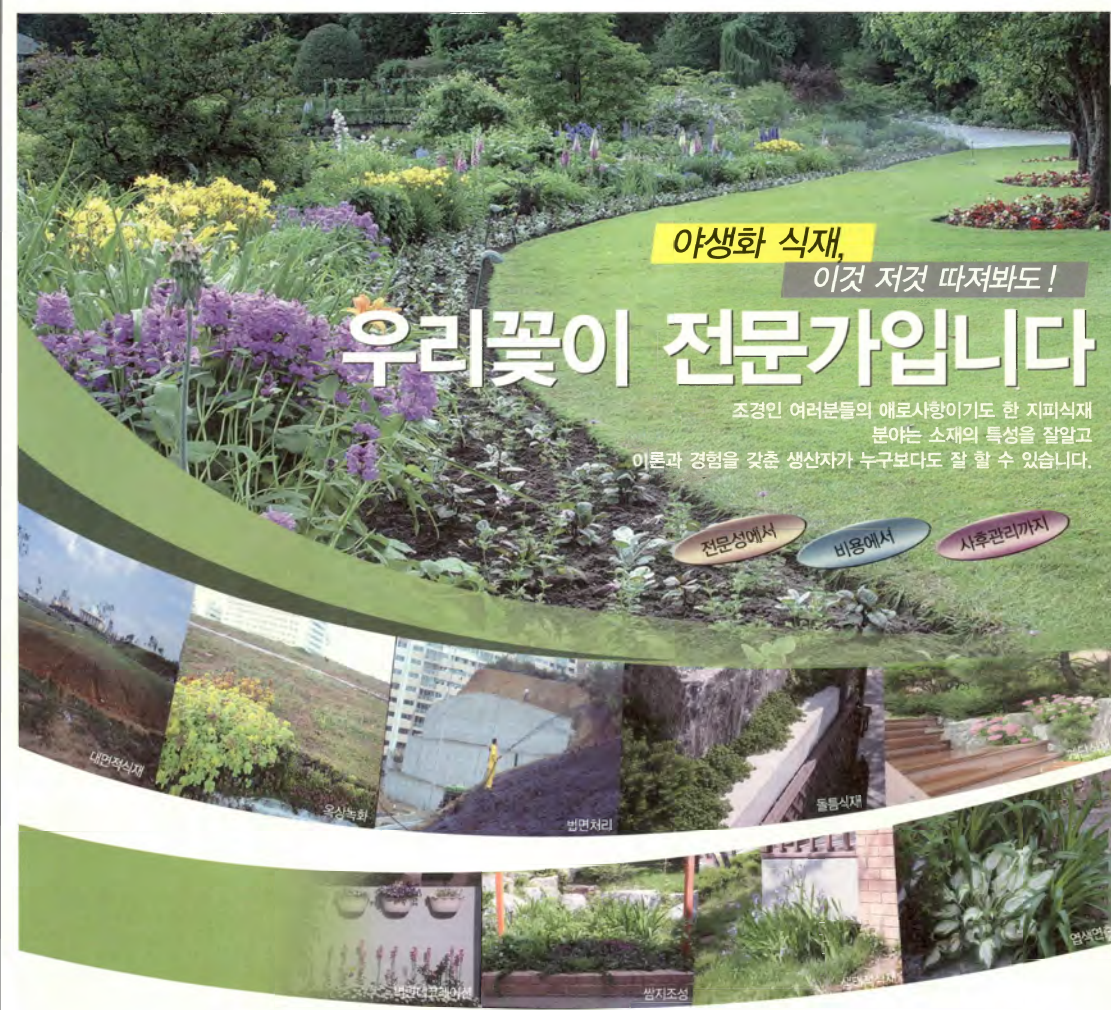


▶ 우리법면 시리즈의 가장 큰 장점인 동계까지 적용 가능한 2000년 출시 분부터 적용하였다.



▶ 우리법면 시리즈의 가장 큰 장점인 동계까지 적용 가능한 2000년 출시 분부터 적용하였다.

우리꽃 신제품 시리즈



야생화 식재, 이것 저것 따져봐도!

# 우리꽃이 전문가입니다

조경인 여러분의 애로사항이기도 한 지피식재 분야는 소재의 특성을 잘 알고 이론과 경험을 갖춘 생산자가 누구보다도 잘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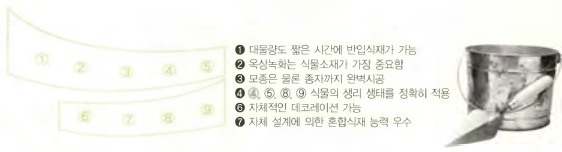
전문성에서 비용에서 사후관리까지



## 어떤 현장도 우리와 함께 하면 유리합니다.

가격경쟁력과 완성도, 하자예방 및 처리 등에서 우리는 충분한 경험과 앞선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 1 소재를 우리가 생산, 가격 경쟁력이 우수합니다.
- 2 식물의 특성과 생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 3 완성도가 높고 하자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 4 혹 하자가 발생해도 신속하고 완벽하게 처리합니다.
- 5 지속적인 우수 품종과 관리기술이 지원됩니다.



- 1 대물량도 짧은 시간에 반원식재가 가능
- 2 옥상녹화는 식물소재가 가장 중요함
- 3 모퉁은 물론 좁지까지 완벽시공
- 4 흙, 물, 공기, 인공의 생리 생태를 정확히 적용
- 5 실제 설계에 의한 혼합식재 능력 우수



- 블루색의 입과 다양한 화색은 우리의 상록패랭이 역사를 한단계 끌어 올립니다.
- 라인을 형성하거나 건조지 식재를 위한 최상의 품종군
- 어릴 때는 화양목같은 구형, 짓무름이 없음

입과 꼭 최고의 상록패랭이  
**왕상록패랭이** 시리즈  
 입의 질감 최고, 화색다양 신개념 상록패랭이



리아트리스  
 입과 꽃이 모두 아름다운 장미 개화형 지피력 배양고 강함!  
 무늬독서 노란무늬가 선명한 화분과의 재미음



개량작약  
 100품종 확보, 공원이나 식물의 등의 이벤트 용이  
 ● 화색이 선명하고 꽃이 크다.  
 ● 재배가 쉽고 꽃수가 많다.  
 ● 최고의 아름다운 볼꽃이다.



불가리아 할미꽃  
 생육종은 최상의 볼꽃, 문화용으로도 인기



황금꽃뱀무  
 황금색의 장미 개화형, 이른봄 최상의 조경소재



무늬엔젤리카  
 손기가 많은 여름철 최고의 수형, 수생식물



캐나다매발톱  
 분화율은 물론 이른봄 최상의 조경소재



유색범부채  
 강한 입과 화려한 화색의 조화



썬드롭 (낮에 피는 달맞이 계)  
 생육이 강건한 속근 낮달맞이



속근겹뱀비 (꽃양귀비)  
 대면적의 최고 이벤트.



별채꽃  
 꽃이 매우 아름다움 고급 소재, 생육이 양호



왕송악  
 안정적이며 녹색 파노라마



왜성속근해바라기  
 키가 작은 최상의 연중 개화종



서양톱풀 (혼합종)  
 피스델몬의 고급 정원용



에키나  
 장미개화형의 이국적 아름다움



웨델리아  
 포복성의 양·음지 식물로 노랑색의 꽃이 절경

야·생·화·지·피·식·물

# 이달의 조경관리

지리한 장마에서 벗어난 8월은 식물이 가장 왕성하게 자라는 시기이며 또한 가을의 문턱으로 결실을 준비하고 하는 계절이다. 이 달의 주요 관리포인트는 장마로 인해 약해졌거나 병충해에 의한 피해와 침수 혹은 토사 퇴적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장마가 떠 내린 잠조를 마지막으로 제거하는 시기이다.

- 1. 이달의 관리포인트**  
8월은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연일 시작되다 말일로 접어들면서 야간 기온이 내려가면서 식물의 생육이 왕성해지고 결실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장마가 끝난 시점으로 잠조와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고 간혹 태풍에 의한 영향도 주의 시기이다.

우선 장마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토사가 무성되어 뿌리가 노출되거나 토사가 쌓여 무성인 식물을 복구하고 잠조를 제거해야 하며 새끼와 패배 등 뜰에 있던 식물들의 죽은 잎을 제거하여 통풍을 좋게 해야 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병충해가 많이 발생하므로 예방 약을 치료 자원의 약제살포를 병행해야 한다.

가을에 개화할 식물의 키를 낮추거나 전체적인 모양잡기를 위해 솎아라거나 병충해잡기를 잘라 풀을 다시 깎아주는 일도 빠짐없이 해야 한다. 이때 6~7월에 개화한 식물의 줄기나 마른 꽃대 등을 잘라내다 지는 줄고하며 종자를 받을 것 외에는 보기 좋게 질라 수순을 받는 것도 앞으로의 관엽포인트를 유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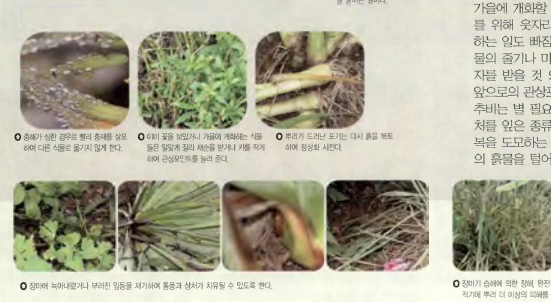
추비는 별 필요 없으나 장마가 때 췌기 약해졌거나 상처를 입은 종류들을 삼과 영양제나 추비를 하여 빠른 회복을 도모하는 일도 필요하다. 키가 낮은 식물들 경우 잎의 흠뻑을 털어주는 일과 앞으로 예 태풍에 대비하여 지

주대를 세우거나 바람에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한다

- 2. 이달의 주요 관리사항**  
1) **병충해 중개 하기 위한 잎을 따거나 마른 꽃대, 줄기를 지르는 작업을 수행하는 식물** - 새끼류, 상록패랭이, 왕상록패랭이, 잔디패랭이, 애상아스타, 꽃잔디, 수련, 연, 들다롱, 아주가, 바위취, 세라스티오, 튜플, 금계국, 무늬비바초, 집시꽃, 삼백리향, 구절초 등
- 2) 병충해 방제를 위해 약제를 살포 해야 하는 식물** - 새끼류, 들장미, 인초류, 후박속 알반초, 장미류, 섬벚리향, 아주가, 구절초, 산국 등
- 3) 열해 혹은 내한의 개화를 위한 추비를 해야 하는 식물** - 옥단, 장미류, 구절초, 산국, 완수국, 후박속, 동굴대, 꽃장미, 비바초, 옥잠, 튜플, 상수국, 맥동초, 무늬비바초, 사사, 관중, 수련, 연, 줄사철류, 매발톱류, 송아, 망령이, 개망령아스타 등
- 4) 번식용 종자재제나 혹은 번식용 용이한 식물** - 금계국, 밭꽃, 꽃장미, 참나무, 노루오줌, 용마리, 패랭이, 들장미, 튜플, 꽃망귀, 민반이 대나무, 수국, 국화, 섬꽃등 등 **삼목 혹은 포기나누기** - 노루귀, 끈근, 꿩이, 사스타테이지, 호송꽃, 은방울 등

**3. 이달의 주요 포기는 식물**  
발개미취, 후박속, 참나무, 빈부채, 잔디패랭이, 분홍구드레키아, 율리나물, 부엉, 꽃반디고리, 분홍구드레키아, 스킨디스, 숙근국화, 개망령아스타, 옥잠, 맥동초, 제초, 연, 수련, 개미취, 도라지, 마타리, 송배영이, 꽃무릇, 백인연꽃, 동자꽃, 딱지꽃 등

**2. 제3회 산림문화작품공모전 안내**  
● 공모전 개요  
- 주 최 : 산림청 - 산림진흥위원회  
- 주 원 : 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  
- 공모내용 : 아름다운 산, 숲, 산촌, 자연휴양림을 주제로 한 작품 (중점주제 : 한국의 100대 명산, 자연휴양림)  
- 공모부문  
- 일반부 : 사진(컬러 11 x 14인치), 시(2면이나)  
- 학생부 : 시(문수채화, 크레파사화), 글짓기(시,산문)  
● 추진일정  
- 접수기간 : 2003. 8. 25 ~ 9. 9(16일간)  
- 접수처 : 산림진흥위원회 홍보실(02-3434-7242)  
- 심사지 발표 : 2003. 9. 29(개별정보 및 홈페이지 게시)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시상일시 : 2003. 10. 15(수) 정부대전청사  
- 전시 회  
- 2003. 10. 15~11. 19(정부대전청사 중앙홀)  
- 2003. 11. 25~11. 30(서울로 대학로 예술회관 (전시실))



체도 꽃색을 섞어 파스텔화 하는 것이 좋다. 물론 계절별로 어떤 특정한 종류의 개화만 유도하여 한 종류로 이루어진 느낌도 고려할 수 있다. 화기의 경우는 화색과 조화를 잘 이루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화색이 붉은 색이거나, 수분에 약 또는 강하여 피는 식물의 경우 비로 인해 심기보다는 거리를 간격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잎에 무늬를 가진 식물들을 적절히 혼합, 꽃이 피지않는 경우에도 아름다움을 특성 있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네째 식물의 지랑, 휴면기를 고려해야 한다.** 어떤 식물은 사계절을 모두 파랗게 상록으로 자라는가 하면 어떤 식물은 봄에만 잘라내었다. 꽃만 피고 나면 사라지는 종류가 많다. 이들의 경우 생태적인 생육기를 고려하여 가지르는 것이 고려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크로커스, 옥잠, 알라리움속의 구근식물의 경우 봄일찍 개화하고 비로 인해 썩기 때문에 잎을 지사부가 사라지게 된다. **이달의 경우는 일부 기타 다른식물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화기와 화색만 고려하여 이 전면에 지체할 수 있고 꽃잔디의 경우 봄에는 매우 아름답지만 여름과 가을에는 꽃이 없으므로 두배부추, 패랭이, 꽃무릇, 너도밤나무 등과 같은 식물과 혼합하면 좋다. 금강화, 복수초, 노루귀 등의 경우도 비슷한 휴면기를 가지므로 여름, 가을 생육을 혼합하여 서로 생육기를 달리하게 하는 방법이 좋다. 다섯째, 보수관리에 좀더 신경을 써야 한다. 혼합의 경우 다양한 식물이 한꺼번에 시제되므로 일반적으로 관리에 좀더 많은 신경을**

에 뒤쪽, 혹은 중간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 대체로 봄 잎 개화하는 식물의 경우 다른 여름 가을 식물에 비해 초기 생육이 매우 빨리 여름 가을 식물들이 자라기 전에 개화함으로써 잎이 뒤나 관상에 있어서는 제약을 덜 받는다. 이들은 꽃이 지고 나면 예쁘게 잘라내 다시 있을 만큼 되고 아름답고 잎의 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잎에 무늬를 가진 식물들을 적절히 혼합, 꽃이 피지않는 경우에도 아름다움을 특성 있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네째 식물의 지랑, 휴면기를 고려해야 한다.** 어떤 식물은 사계절을 모두 파랗게 상록으로 자라는가 하면 어떤 식물은 봄에만 잘라내었다. 꽃만 피고 나면 사라지는 종류가 많다. 이들의 경우 생태적인 생육기를 고려하여 가지르는 것이 고려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크로커스, 옥잠, 알라리움속의 구근식물의 경우 봄일찍 개화하고 비로 인해 썩기 때문에 잎을 지사부가 사라지게 된다. **이달의 경우는 일부 기타 다른식물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화기와 화색만 고려하여 이 전면에 지체할 수 있고 꽃잔디의 경우 봄에는 매우 아름답지만 여름과 가을에는 꽃이 없으므로 두배부추, 패랭이, 꽃무릇, 너도밤나무 등과 같은 식물과 혼합하면 좋다. 금강화, 복수초, 노루귀 등의 경우도 비슷한 휴면기를 가지므로 여름, 가을 생육을 혼합하여 서로 생육기를 달리하게 하는 방법이 좋다. 다섯째, 보수관리에 좀더 신경을 써야 한다. 혼합의 경우 다양한 식물이 한꺼번에 시제되므로 일반적으로 관리에 좀더 많은 신경을**

체도 꽃색을 섞어 파스텔화 하는 것이 좋다. 물론 계절별로 어떤 특정한 종류의 개화만 유도하여 한 종류로 이루어진 느낌도 고려할 수 있다. 화기의 경우는 화색과 조화를 잘 이루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화색이 붉은 색이거나, 수분에 약 또는 강하여 피는 식물의 경우 비로 인해 심기보다는 거리를 간격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잎에 무늬를 가진 식물들을 적절히 혼합, 꽃이 피지않는 경우에도 아름다움을 특성 있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네째 식물의 지랑, 휴면기를 고려해야 한다.** 어떤 식물은 사계절을 모두 파랗게 상록으로 자라는가 하면 어떤 식물은 봄에만 잘라내었다. 꽃만 피고 나면 사라지는 종류가 많다. 이들의 경우 생태적인 생육기를 고려하여 가지르는 것이 고려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크로커스, 옥잠, 알라리움속의 구근식물의 경우 봄일찍 개화하고 비로 인해 썩기 때문에 잎을 지사부가 사라지게 된다. **이달의 경우는 일부 기타 다른식물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화기와 화색만 고려하여 이 전면에 지체할 수 있고 꽃잔디의 경우 봄에는 매우 아름답지만 여름과 가을에는 꽃이 없으므로 두배부추, 패랭이, 꽃무릇, 너도밤나무 등과 같은 식물과 혼합하면 좋다. 금강화, 복수초, 노루귀 등의 경우도 비슷한 휴면기를 가지므로 여름, 가을 생육을 혼합하여 서로 생육기를 달리하게 하는 방법이 좋다. 다섯째, 보수관리에 좀더 신경을 써야 한다. 혼합의 경우 다양한 식물이 한꺼번에 시제되므로 일반적으로 관리에 좀더 많은 신경을**

## 이달의 가볼만한 곳

**○ 한택식물원**  
상당한 전문성과 식물종의 다양성이 돋보이는 국내 최고 수준의 식물원, 다양한 국내의 자생식물이 어우러진 광경과 수목원과 조화는 광경수목원과는 또다른 느낌, 약 1000종의 자연생태원, 120여종의 원주식원, 500여종의 고산성 식물로 꾸민 압축원, 관복원, 약용전원과 허브식물이 심겨진 약용식물원 등은 한택식물원의 자랑. 진디와 화물류가 조화로운 잔디화단은 맨날로



이달의 가볼만한 곳. 이 시기를 놓치면 후회할 일이다.

## 2. 영계단산

**1. 골짜기 여름 휴양지정 확정**  
다양은 전국 골짜기 여름휴양지 선정 계획 ● 그린힐은 8월4일 ● 진주=7.8일 매주 월요일, 9월 1일, 8일 ● 레이크사이드= 7월28일, 8월4일 ● 승주= 7월28일 ● 지용= 7월28일~8월1일 8월 매 주 월요일 ● 대평= 매월 2번째, 4번째 월요일 ● 남여수= 7월 21~24일 ● 금강신원 준부= 7월 28~31일 ● 뉴코리아산= 7월 28일~8월1일 ● 곤지암= 7월28일~8월1일 ● 서서릉= 7월 29~31일 ● 남춘=7월29일~8월10일 ● 승림= 8월 4~7일 ● 대재미 아일랜드= 8월 4~8일 ● 남부= 8월 5~8일 (김종훈 modokim@yna.co.kr) Copyright 연맹회

**2. 4.야생화는 내 친구**  
아주귀대, 각시꽃, 매발톱꽃, 금강화, 물봉선, 지베꽃... 전국 식물 389명인 시골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야생화 사랑이 눈길을 끌고 있다. **4.야생화는 내 친구**  
아주귀대, 각시꽃, 매발톱꽃, 금강화, 물봉선, 지베꽃... 전국 식물 389명인 시골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야생화 사랑이 눈길을 끌고 있다. **4.야생화는 내 친구**  
아주귀대, 각시꽃, 매발톱꽃, 금강화, 물봉선, 지베꽃... 전국 식물 389명인 시골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야생화 사랑이 눈길을 끌고 있다.

## 동아리탐방

김 강초등학교는 91년부터 동국대학교 생물관과 **자원의 신비를 탐구하자! 동국대학교 "금강초롱회"** 김 강초등학교는 91년부터 동국대학교 생물관과 **자원의 신비를 탐구하자! 동국대학교 "금강초롱회"** 김 강초등학교는 91년부터 동국대학교 생물관과 **자원의 신비를 탐구하자! 동국대학교 "금강초롱회"** 김 강초등학교는 91년부터 동국대학교 생물관과 **자원의 신비를 탐구하자! 동국대학교 "금강초롱회"**

김어보는 것도 또다른 재미, 전문가나 식물매니아라 뿐만 아니라 가족, 연인들이 가볍게 둘러보기도 안성맞춤. (전화031-671-5663, www.hantaek.co.kr) **위 치 :** 경기 용인 백안면 육산리 **교통 :** 서울-용인백안-화성시일죽면-82번국도(한성방면 구도도) **○ 명지산 맑은 물과 천연림의 조화, 그리고 다양한 식물상, 특히 정상부위의 금강초롱 등 희귀식물은 경치와 더불어, 개국과 이어진 맑은 물은 어디서든 느낄 수 있는 곳. (전화031-671-5663, www.hantaek.co.kr) 위 치 :** 경기 가평군 북면,하연 **교통 :** 서울-구마-46번국도 가평방면-북동-명지산 관광차 : 명지폭포, 현담사, 남이섬유원지 **○ 비연(秘苑)** 도심 한 복판에서 고즈넉이 나무 한그루,

꽃향수를 느낄 수 있다... 청각적 후원이 비연은 사람들이 왔다며 서울을 탈출할 때 거꾸로 도심에서의 황재라 할 수 있는 곳, 조선시대 궁궐의 숲중에서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곳이기도 하다. 세월과 함께 이전의 소나무 대신 참나무가 주인 노릇을 한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향나무의 향토종과 수백년된 매실나무, 후원이 에 있어 계곡, 언덕, 정자, 연못... 조선의 기품이자 세월의 흔적이 배어있다. **○ 정문산** 맑은 물은 원시림에 가까운 숲이자 희귀식물의 보고, 우리들의 식물의 20%가 모여 있다고 하여 식물전원가를 사이에는 꽤 유명하다. 나무 한그루의 둘레가 3m에 가까운 신갈나무 숲은 장관, 대단한 참나무 숲의 기개를 느껴보자. 조금 늦은 여름철엔 이곳에 금강초롱이 지천에 깔린다. 능선을 따라 오르면 송나리, 대, 왜송다리, 바람꽃 등의 희귀식물도 만날 있다. **위 치 :** 강원 양양군, 인제군 **교통 :** 한계령-양양면 서면 오세리 **○ 미이산** 전문가들이 초보자연인에게 권하는 숲, 말의 귀처럼 생겼다 하여 미이산(馬耳山)의 불우리와 80여개의 돌담만 보고 돌아서면 미이산의 분방 노닐는 신, 진짜보물에는 두봉우리의 사각질 넘어 펼쳐진 송사철나무와 청실배나무 군락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귀뜸, 또 볼거리는 주홍색의 능선과 꽃송이와 은수사 마당의 상사화, 줄기가 멋진 서어나무, 숲 사이엔 대대명굴도 미이산의 자랑. **위 치 :** 전남 진안군 진안읍, 마령면 **교통 :** 전주C-26번국도 진안방면

꽃향수를 느낄 수 있다... 청각적 후원이 비연은 사람들이 왔다며 서울을 탈출할 때 거꾸로 도심에서의 황재라 할 수 있는 곳, 조선시대 궁궐의 숲중에서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곳이기도 하다. 세월과 함께 이전의 소나무 대신 참나무가 주인 노릇을 한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향나무의 향토종과 수백년된 매실나무, 후원이 에 있어 계곡, 언덕, 정자, 연못... 조선의 기품이자 세월의 흔적이 배어있다. **○ 정문산** 맑은 물은 원시림에 가까운 숲이자 희귀식물의 보고, 우리들의 식물의 20%가 모여 있다고 하여 식물전원가를 사이에는 꽤 유명하다. 나무 한그루의 둘레가 3m에 가까운 신갈나무 숲은 장관, 대단한 참나무 숲의 기개를 느껴보자. 조금 늦은 여름철엔 이곳에 금강초롱이 지천에 깔린다. 능선을 따라 오르면 송나리, 대, 왜송다리, 바람꽃 등의 희귀식물도 만날 있다. **위 치 :** 강원 양양군, 인제군 **교통 :** 한계령-양양면 서면 오세리 **○ 미이산** 전문가들이 초보자연인에게 권하는 숲, 말의 귀처럼 생겼다 하여 미이산(馬耳山)의 불우리와 80여개의 돌담만 보고 돌아서면 미이산의 분방 노닐는 신, 진짜보물에는 두봉우리의 사각질 넘어 펼쳐진 송사철나무와 청실배나무 군락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귀뜸, 또 볼거리는 주홍색의 능선과 꽃송이와 은수사 마당의 상사화, 줄기가 멋진 서어나무, 숲 사이엔 대대명굴도 미이산의 자랑. **위 치 :** 전남 진안군 진안읍, 마령면 **교통 :** 전주C-26번국도 진안방면

## 社告

- 생산농장 겸 연구소 개설  
이전에 1933년경 부지 확보, 시설과 노지 5만평, 국내 자생식물과 도입종 등 약 500종 재배, 물경산에서 육묘 및 증식, 시화제비까지 일관화 시스템 기반 조성.
- 우리꽃 남양주 전지역 날갈  
우리꽃은 지난 7월 29일 남양주시가 실시한 홍자 및 서식지 Seed Spray인형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 당초 우리꽃은 개재선과 경합을 피하기 위해 입찰을 보류했으나 유찰됨에 따라 재입찰에 응할. 절경이와 청나라 등 국내에서 우리꽃만 취급하는 품목이 많아 우려곡절 끝에 낙찰.
- 여주자연농고생 3명 실습  
여름방학을 맞아 이전농장에서 여주자연농고생인 김홍철, 김남현, 허영무 등 3명 실습자로. 실습기간 7월21일부터 오는 8월 17일까지.
- 조직개편 및 인사  
우리꽃은 전문성을 강화하고, 확대되는 사업규모에 차질없이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확대 개편. '실재팀'과 '구매팀'을 신설하고 '생산관리팀'과 '홍보·판매팀'을 확대 개편. ▲박영명이사 ▲서준희 차장
- 박영명이사, 유림 출장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의 중국출장에 이어 24일부터 8월2일까지 유럽 출장
- 우리꽃, '우수기업상' 수상  
스포츠서울과 헬스드림제 선정

**희귀계절 선두기업 '우리꽃'**

**희귀계절의 새로운 감자, 무라토**

